

제60회 합격자 윤상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2000년생
공부 기간 : 1년 6개월

키워드: **특히 고득점, 전체 24등**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0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윤상희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방향성에 고민이 될 때, 공부하다 지칠 때 합격 수기를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 합격 수기는 **'효율적으로 빠르게 볼자'**라는 키워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I. 변리사 시험 진입 (진입 전(진입 시) 상황 또는 진입 동기)

제가 변리사 시험에 진입한 시점은 2021년 8월, 3-1학기를 마친 후였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다른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변리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변리사 시험이 저한테 맞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재산거래와 법」을 수강했습니다. 민법에 대해 조금 배워보니 저와 잘 맞을 것 같아서 진입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민법의 앞부분 수강해보시고 법 과목이 재미있는지, 이해가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II. 1차 공부법 (2021.8월~2022.1월, 슬럼프가 와서 2월 한 달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80.8점 /컷 80.8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민법	기본강의 + 복습		1 회독		2 회독+객관식	3 회독 + 오답
특허법			기본강의 + 복습		1 회독	2 회독 + 기출
상표법				기본강의	1 회독+문제	2 회독 + 오답
디보법					기본강의+문제	1 회독 + 오답
화학	기본강의+문제		회독 + 오답			중요 문제
물리		기본강의 + 문제			오답	
지구과학				기본강의	1 회독	2 회독
생명과학					중급강의	1 회독

1) 민법 (8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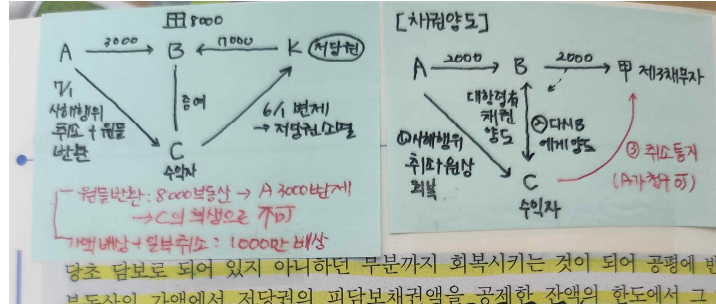
[강의]

매일 오전 기본강의를 3~4강 정도 수강하였고 집중이 잘 되는 날에는 5강 이상 수강했습니다. 다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복습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날 배운 부분의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기본서를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법을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서 복습했습니다. 아무래도 민법은 실생활과 연결된 부분이 많다 보니 쉽게 다가왔습니다.

[공부방법]

주체, 객체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갑, 을, 병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누가 대리인인지와 같이 관계도를 잘 생각하고 그릴 수 있을 만큼 상황을 잘 파악해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 배울 때는 관계도를 반드시 책에 그렸던 것 같습니다.



[회독]

기본강의 수강하면서 복습 1회, 회독 3회로 총 4회 회독 후에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회독 수가 적은 편이지만, 꼼꼼하게 보는 성격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회독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공부하실 때 회독 수가 안 나와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길을 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점점 빨라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반부에는 8~10pg를 1시간 동안 보았고 이후에는 15~20pg를 봤던 것 같습니다.

[교재]

강의 수강과 복습은 이상윤 강사님 「판서 노트」, 「민법의 정석」, 「민법 강의」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회독은 「민법의 정석」을 사용했고 교재에 필기했습니다. 서브를 만드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서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이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시험 직전에 1 회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저도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특허법 서브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결국, 만드는 시간만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평소에 서브를 만들지 않고 공부를 했던 분들은 굳이 서브 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객관식은 「변시민법기출문제」를 사용했고 틀린 문제와 기출문제만 1번 더 확인했습니다. 객관식 시험이고 내가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르므로 반드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강의 수강 중 복습을 하면서 기본강의확인학습문제와 진단평가를 풀면서 저의 이해도를 점검했습니다.

2) 산업재산권법 (90점, 특허법 18/20, 상표법 9/10, 디자인보호법 9/10)

1. 특허법 (2021.10.중순~11월초)

[공부방법]

특허법은 처음에 매우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보다 복습하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허법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처음에 특허법 공부를 하다 보면 출원공개, 설정등록과 신규성, 진보성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그림을 직접 그리고 이해하면서 결국 그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2차 시험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심판, 소송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줄글로 되어있는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② 두 번째는 '조문 암기'입니다. 2차는 법전이 제공되지만, 1차는 아니므로 중요 조문은 거의 암기를 해야 합니다.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주체, 키워드는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 가는 길에 그날 배운 조문을 암기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문은 꼭 다 외우고 잔다는 생각으로 조문을 암기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음 날 스터디 카페에 도착하면 전날 배운 조문을 안 보고 써봤습니다. 글씨를 쓰다 보면 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에서 깰 수 있어서 졸릴 때 조문을 쓰면서 암기를 점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임병웅 변리사님 「리담 특허법」과 「강의 노트」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강의 난이도가 높아서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특허법 이해도가 이때 정말 많이 향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 고찰을 해보니 이때 특허법 공부를 한 것이 2차 특허 고득점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지와 관계없이 **개인 공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은 리담 특허법 조문 정리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요 조문이 별1~3개로 나누어 표시되어 있어서 별2~3개는 완벽히 외우고 나머지 순서대로 외웠습니다.

객관식은 「리담객관식」을 구매하여 기출문제만 골라 풀었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객관식을 다 풀어도 좋지만, 기출문제만 풀어도 합격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2. 상표법(2021.11초)

[공부방법]

상표법은 저에게 잘 맞는 과목은 아니어서 가장 방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33조, 34조와 같은 중요 조문은 암기했고 나머지 조문들은 간단하게 암기했습니다. 상표법 만점을 받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문 암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박종태 변리사님의 「리담 상표법」, 「보충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표법은 방어과목이다 보니 톡방에 올라오는 진단평가문제와 보충자료에 있는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풀지 않았습니다. 보충자료에 기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했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2021.12)

[공부방법]

디자인보호법은 상당 부분이 특허법과 내용이 같으므로 크게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의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교재는 「리담 디자인보호법 1차 서브 노트」, 「보충자료」, 「리담 디자인보호법」을 활용했고 회독은 「서브 노트」만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보충자료에 뒤에 있는 O/X 문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것만 복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자연과학 (72.5점)

자연과학은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물리와 화학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8~9문제 이상 맞추고 나머지 과목은 3~4개를 맞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화학] (4/10)

강의 수강 후에 복습하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교재는 「새로운 화학」을 사용했습니다.

[물리] (7/10)

물리는 가장 취약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법 과목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체력도 남아 있지 않다 보니 법을 공부하면서 자연과학을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와서는 자연과학 공부를 의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손용욱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시간이 남을 때 공식을 암기했습니다. 강의가 쉽고 자세해서 물리에 자신이 없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9/10)

지구과학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물리와 함께 수강했습니다. 물리를 월, 수, 금, 일 3~4시간을 하면 지구과학을 화, 목, 토 2시간 정도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암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과생 분들이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인풋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준희 강사님 기본강의와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교재에 문제가 충분하므로 다른 교재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고, 강사님이 강의시간에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구과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뒤에 문제를 풀지 못했고 각 챕터마다 있는 확인문제만 풀고 시험을 봤습니다.

[생명과학] (9/10)

생명과학은 자신 있었으므로 12월에 최성운 강사님의 중급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재는 「TB코어필기노트」를 사용했습니다. 12월에 공부하는 과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따로 문제를 풀지 않고 화장실에서 독방에 매일 하나씩 올라오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4) 기타 (객관식 회독방법 등)

[회독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상황이 그려지도록 회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독하실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해를 목표로 하지만 판례 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처음부터 모두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일단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3번째 다시 보면 이해의 폭이 처음보다 훨씬 넓어져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회독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의 판례원문을 찾아보고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이 법학의 이해도를 높이고 고득점을 맞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빠른 합격의 지름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문]

1차는 무엇보다도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민법도 중요 조문은 암기하였고 산재법은 거의 조문을 암기했습니다. 물론 판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판례는 완벽하게 암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한 글자를 바꿔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문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시간에 길에 가면서 외웠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이동시간이 아깝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식]

1차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객관식 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개의 선지의 OX를 모두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선지를 OX 문제처럼 옆에 OX를 표시하면서 풀었고 헛갈리는 선지를 체크해두고 이를 1~2번 정도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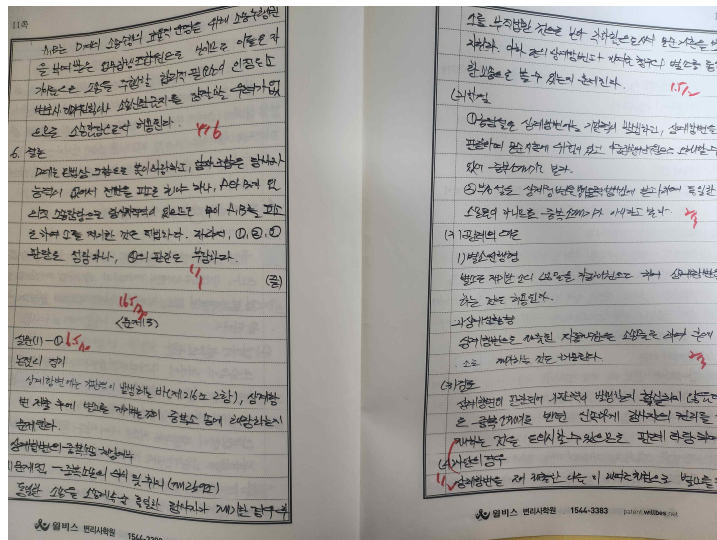
민법 4:00	특허 2:00	상&디 2:00	과학 3:00
---------	---------	----------	---------

IV. 2차 공부방법

동차 : **상표 과학** / 기득 : 평균 **58.22** (컷 54.33)

동차를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고등학교와는 달라서 변리사 공부가 혼자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차 종합반이 있던 변리사스쿨 종합반에 등록했고 나이, 선택과목을 고려해서 스터디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의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스터디를 어디서 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은 종합반 등록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54 -> 57 분량 20pg)** *글씨 크기가 큰 편입니다.



[동차] (2022.3~7)

1차 결과가 나오는 3월부터 4월까지 최영덕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복습했습니다. 이후에는 최영덕 강사님 GS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강의는 동차생이 듣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GS는 답안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고 답안지 틀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론을 꼭 써야 하고 한 목차당 분량이나 틀 부분에서 교수님이 채점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채점할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동차 시기에는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본서는 보지 않고 GS만 회독한 후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돌아해보니 동차 때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기득] (2022.1~7)

- 1월** : 발표가 나온 뒤 「이창한 교수님의 심화강의」를 들었습니다. 헛갈리는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 2, 3월** : 회독은 가독성이 좋은 「윤곽 민사소송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초반에는 하루에 30pg, 이후에는 50~60pg 정도 했습니다. 저는 회독을 할 때 암기를 병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암기는 키워드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했습니다. 암기방법은 밑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4, 6월** : GS는 이창한 교수님 민사소송법 A형과 B형은 실강으로 수강했고 gs에 나온 쟁점은 반드시 알고 갈 수 있도록 복습을 했습니다. 총 복습은 2회 진행하였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1회 더 복습했습니다. 복습할 때는 문제를 보고 목차와 키워드만 다시 적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30점은 10분, 20점은 8분을 잡고 복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한 회를 복습할 때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창한 교수님 gs가 거의 그대로 출제됐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늘리시기보다는 gs와 기본서를 많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gs 복습은 다음주 수요일 전에 시험을 보는 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고민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틀리지 않도록 기본서에 적으면서 유의했습니다.
- 5월** : 양진하 변리사님 gs를 스터디원과 목차 잡기로 풀어봤습니다. 목차틀이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고 어떤 부분을 써야 득점에 유리할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 시험** : 저는 조판판례를 쓰지 않았고 논리 구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총 20pg의 분량을 작성하였는데 논점에 맞지 않게 일반론을 많이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2) 특허법 (45 -> 63 분량 19pg)

동차에는 조현중 변리사님 gs만을 수강하고 암기했으므로 기득일 때 공부방법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 2월** : 박지환 변리사님 기득용 강의를 듣고 잊어버린 개념을 잡았고 교재를 이용해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 4시간 30분 공부를 했고 민소 80%, 특허 20% 비율로 공부를 했습니다. 암기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지만, 키워드를 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미리 암기했던 부분이 고득점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3월** : 박형준 변리사님 GS를 수강했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이 색달랐고 최신판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은 하위 70%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답안지의 좋은 부분을 제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GS를 복습하면서 최신판례를 꼼꼼하게 공부하고 다양한 배점으로 답안지를 작성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GS를 처음 풀 때 러프한 문제들이 많아서 논점이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문제를 풀 때 난이도가 낮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배점이 독특했던 60회 시험에서 도움이 되었고 조치관련 문제에서는 심판중, 기각심결의 경우, 인용심결의 경우로 나누어 상황별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4월** : 스터디원과 박지환 변리사님의 GS 풀었습니다. 서로의 답안지를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면서 내가 채점자라면 '이 부분은 별로 유심히 보지 않겠구나', '이런 건 좋게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답안지를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 5월** : 문현돈 변리사님 GS를 수강했습니다. 소수강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답안지의 장단점을 알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수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논점, 답 이외에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수정해서 단 1점이라도 높인다면 합격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6월** : 박형준 변리사님의 콜라보 강의를 들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고 놓치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GS 성적이 상위 10%에서 70%까지 매번 달랐는데 이는 아는 논점이 나왔을 때 잘 쓰고 아닌 경우에는

못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다가와서 성적이 잘 안 나오니 울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 : GS 복습과 기본서 회독만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히려 최신판례, GS, 기본서 그 외 공부해왔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완벽히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 GS를 쓰면 토요일 오전에는 잘 안 써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20점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60회 시험은 논점은 평이했지만, 첫 문제가 2점이었고 배점 조절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이 될수록 아는 것이 많아서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쓰게 되는데, 2점을 거의 1pg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판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만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고득점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첫 시험이라 감독관님들께서 답안지 2개를 배부해야 하는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에서 가장 먼저 2번째 답안지를 달라고 하기 위해 손을 들었는데 감독관님들께서 모두 핸드폰을 하고 계셔서 너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떨어뜨려서 소리를 내서 답안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상표법 (34.33 과락 -> 54.66 분량 18pg)

[동차]

김영남 변리사님 강의와 gs를 수강했습니다. 동차 시험장에서는 4번 문제를 풀지 못했고 결국 과락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절대적 공부시간과 공부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

4월 : 상표법은 방어과목이었기 때문에 30%의 비율로 공부했습니다. 최지환 변리사님 심화 강의와 기본서를 활용해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최지환 변리사님 GS를 풀었을 때, 문제 사실관계를 보고 해당 판례를 떠올리지 못해서 문제에 맞는 판례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판례강의**를 듣고 판례집으로 회독을 하니, 문제를 보고 바로 판례를 떠올릴 수 있었고 점수도 향상했습니다.

5월 : 김주안 변리사님 gs 강의를 들었습니다. 답안지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상품을 나누는 연습, 일반론 문제의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60회 시험에서도 33조 2항과 관련한 판례를 모두 쓰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주,객,시 형태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 김세원 변리사님 GS를 수강했습니다. 시험 직전에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최신판례 모음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각 답안지의 장점을 체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7월, 시험 : 판례집 회독과 GS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시험은 데이터팩토리, 마스크미 등의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평이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쟁돌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점수를 확인해보니 이를 못 썼다고 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논점을 알겠다는 마음보다는 남들이 다 아는 것을 틀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선택과목: 디자인보호법 (56.33 -> 55.33 PASS, 분량 15pg)

[동차]

PASS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동차 때는 주말에 김웅 변리사님의 GS만을 수강했고 하루에 30분정도 지하철에서 틈틈이 요약집을 암기했습니다.

[기득]

4, 5월 : 기득에는 더욱 공부할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정다운 변리사님 GS를 수강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암기 체크를 하는 스터디를 진행했고 강제성으로 인해 지하철에서 암기하거나 씻고 머리를 말리면서 암기하면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조금씩이라도 공부한다면 충분히 pass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 암기는 김웅 변리사님 요약집을 활용했고 마지막에는 김웅 변리사님 GS를 수강했습니다. 시험과 가장 가깝게 출제하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고, 중요한 점을 정리해서 주셔서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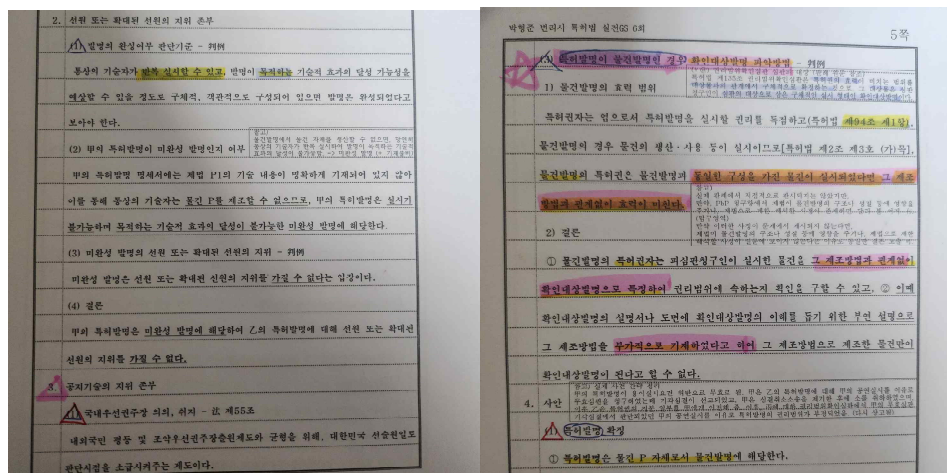
7월, 시험 : 정다운 변리사님의 판례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pass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출문제를 보면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다운 변리사님의 판례교재에 답과 키워드만을 적는 표가 위에 있는데 시험 점심시간에 표만 빠르게 보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판례강의는 따로 시간을 내서 듣지는 않았고 이동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틀어놓는 정도로만 봤습니다.

5) 기타

[회독]

2차 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 5 회독, 특허법 5 회독, 상표법 3 회독을 했고, 회독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판례를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회독 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해하면서 회독했기 때문에 많이 회독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GS를 복습할 시에는 먼저 강의시간에 제가 놓친 부분에 세모 표시를 한 뒤, 왜 놓쳤는지를 고민하고 중요한 내용을 복습합니다. 이후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다시 문제를 보고 목차와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반복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별 표시를 한 뒤, 기본서에 표시해서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암기방법]

암기는 중요하지만, 기본적 베이스일 뿐 암기로 인해 합불이 좌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암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출할 수 있다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보지 않고 판례를 말할 수 있도록 암기했고 중요판례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암기했습니다.

또한, GS 시작 전에 키워드를 다 암기하고 GS를 푸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GS는 내용을 복습하는 것보다 논점을 맞추고 배점에 맞게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을 보고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일하게 특허는 먼저 암기한 뒤에 GS를 진입했는데, GS에서 실력향상이 실질적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기를 빠르게 시작하시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데 팁인 것 같습니다.

IV. 수험생활 일반

[건강관리(운동)]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자세가 안 좋아져서 1차 때는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2회 정도 했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테니스를 일주일에 2~3회 30분 정도 쳤습니다. 햇빛을 보면서 테니스를 치다 보면 잠도 잘 자고 재미있기도 해서 기분전환으로 좋았습니다. 시험 1~2달 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만두었지만, 건강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운동이 맞지 않음에도 할 필요는 없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한가지 정도 가지면 오히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고 저는 정신력이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는 것도 결국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슬럼프 극복]

저는 총 2번의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1차와 동차 모두 시험 한 달 전에는 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슬럼프의 원인은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 1차는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운만으로 결정되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득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의 문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의지를 다잡고 계속 '자기확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터디원과 구르미를 통해서 함께 공부했고 스스로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멘탈관리법]

저의 멘탈관리법은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이었습니다. '법 과목에 최고가 되자, 1등을 하자'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고 '문 닫고 합격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곤 합니다. 다만, 내가 '각 과목당 25% 안에만 들자'는 목표로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실제로 머리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합격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공부장소, 생활리듬] (하루 시간 관리, 스터디 등)

1차 :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모두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공부는 아침 9시~저녁 10시경 정도 공부를 했고, 일찍 일어나면 7~8시에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기도 하면서 유동적으로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약 10시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일요일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차 : 종합반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집부터 역삼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 이동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스터디원과 공부할 수 있어서 의지가 되었지만,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 마지막에는 아예 손을 놓게 돼버렸습니다. 공부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 정도 공부를 했고 순공은 8~9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 쉬고 싶은 날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득 : 스터디카페와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집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나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에서 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그만큼 잠을 자거나 체력을 보충할 수 있었고 스터디카페에서 스트레스받는 일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은 의지가 없으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터디원들과 구르미로 출석체크, 공부시간과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하면서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득에서는 새벽 5시부터 하기도하고 점심 먹고 시작하기도 하면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9시부터 저녁 11~12시 정도까지 공부하면서 순공은 8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시간보다는 얼마나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기간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일, 가장 고마운 사람 등]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의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많이 예민하고 짜증도 났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저의 곁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준 부모님, 동생들, 친척들 심심하면 놀아주고 응원해준 친구들과 동기 선후배들, 수험생활을 함께 보내면서 항상 의지가 되었던 정윤 언니, 나영 언니, 태정 오빠, 먼저 간 승윤 오빠, 민석 오빠, 디자인보호법 강사님이 된 건호 오빠, 항상 넌 할 수 있다고 응원해준 주안 오빠,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많은 강사님, 변리사님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스터디원이 좋은 성적으로 모두 합격하게 되어서 합격자 환영회에서 모두를 만났을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외에도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V.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수많은 조언과 방법을 듣게 되면서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많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